트루시니스(truthiness)

미국에서2006년을대표하는단어로지난해말부터유행한신조어‘ 트루시니스(truthiness)’가뽑혔다. 트루시니스는사실(fact)에근거하지않은채자신이믿고싶은것을진실로받아들이려는성향을뜻하는신조어. 지난해후반기부터미국을휩쓸기시작했으며미국방언협회(ADS)도올해초이를‘ 2005년의단어 로선정한바있다.

미국의코미디언스티븐콜버트가진행하는패러디토크쇼‘ 콜버트리포트 에서처음사용한신조어다. 사실에근거하지않고자신이믿고싶은것을진실로받아들이려는성향을뜻한다. 콜버트는조지W 부시미대통령이이라크를침공하게된계기와해리엇마이어스대법관을지명하게된과정을비판하며이단어를사용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은마이어스대법관지명이유에대해‘ 나는그의가슴을믿는다’고말했다”며“ 트루시니스라는단어가우리를분열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 정치풍자와패러디로인기를끌고있는코미디언출신의방송사회자인콜버트는“ 책에서유래되지않고감정(gut)에서나오는진실”이라고정의한적이있다.

메리엄웹스터회장인존모스는“ 우리는진실이라는것이많은사람마음속에있는문제라고하는순간에있으며진실은아무나차지할수있는것이돼가고있다”며트루시니스의선정의미를부여했다.

파레콘(Parecon)

‘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ics)’의줄임말로써자본주의경제체제도, 계획경제체제도아닌새로운경제체제를뜻한다. 즉, 파레콘(Parecon)은공평성, 연대, 다양성, 자율관리, 생태적균형등의기본적가치들에기초해경제정의를구현하는제도적비전을제시하는용어다.

파레콘의핵심적인구성요소는평등한소유권, 노동자들과소비자들의단체(평의회), 새로운노동조직(균형적직무체계)과보상체계및생산과소비, 대안적할당(참여적계획), 참여적자율관리등이다. 즉, 참여경제에선생산수단의공적소유를원칙으로한다.

그점에서는중앙집중적계획경제의모델을차용했다. 경제주체는정부, 기업, 가계의기존3각구도에서노동자평의회와소비자평의회라는새로운참여적경제주체가중심에등장한다. 노동역시자본주의체제에서는개인의능력과적성에따라육체 · 정신노동으로구분됐지만, 참여경제에서는노동분담체계(job complex)에따라이뤄진다.

기존의경계와위계가사라지고, 평의회에모든정보가주어지기때문에 소외 도해소된다. 직무에따른책임, 새로운생산성의개념에서본경쟁은존재하지만, 보상체계는노력과희생에근거한다.

이러한참여경제는자본주의는물론, 자본주의에대한기존의대안들(중앙계획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등)까지도모두거부하는새로운포괄적대안의의미로10여년부터좌파진영에서논의됐던아이디어이다.

미국의진보주의네트워크인ZNet과Z Magazine의편집자로활동하고있는마이클앨버트는2003년<파레콘(Parecon)>이라는저서를출판했는데, 저자인마이클앨버트(Michael Albert)는이른바진보또는(신)좌파운동을이끌고있는대표적인인물이다.